

‘모범택시2’ 배우 이제훈 “부캐 부담감 있었지만 즐겼죠”

“시즌1 거칠었다면, 시즌2 다채로워”
2021년 ‘모범택시’ 시청률 16% 인기
“시즌1 이어 시즌2도 의미·재미 잡아”

“다채로운 부캐를 보여주겠다.” 배우 이제훈이 ‘모범택시2’에 탑승한 소감을 밝혔다. 이제훈은 17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금토극 모범택시2 제작발표회에서 “시청자들의 사랑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즌1 마무리 후 무지개운수 팀이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헤어지면 아쉽다’고 생각했다. 감사하게도 시즌2 기획 시기가 빨리 돌아와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시즌1 사랑을 이어 받아 시즌2도 그만큼 재미와 의미를 줄 것”이라며 “작가·감독님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나눴다. 촬영 때는 이미 호흡을 맞춰 본 배우들이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즌1과 전혀 다른 ‘부캐(부캐릭터)’를 선

보인다. 준비하는 동안 부담감은 있었지만, ‘즐거움’은 마음으로 입했다. 덕분에 우리 팀의 앙상블이 더 잘 나오지 않았나 싶다. 시즌1은 다소 거친 스타일의 연출이었는데, 시즌2는 이단 PD님이 섬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더욱 다채로워졌다. 시청자들이 ‘시즌1 보다 재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시청자 입장에서 기대가 크다.” 이 드라마는 무지개운수와 택시기사 도기가 역올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하는 이야기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시즌1은 시청률 16%(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넘어 인기몰이했다. 무지개운수 대표 ‘장성철’(김의성)을 비롯해 해커 ‘안고은’(표예진), 엔지니어 ‘최주임’(장혁진)·‘박주임’(배유람)은 시즌1에 이어 합류했다. 신재하는 무지개운수 신

입기사 ‘은하준’으로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제훈은 “시즌2 1·2부는 베트남을 배경으로 찍었다. 악당,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포착, (무지개운수) 해외로 진출하는 걸 다채롭고 스케일 있게 보여줘 놀라웠다. 이국적인 색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서 덥고 습해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찍지 못한 부분은 국내에서 잘 마무리했다. CG 도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여사(심소영)와 만나 두근거렸다. 도기와 김여사가 어떻게 재회하는지 기대해달라”면서 “1부 극본을 받았을 때 도기가 감옥에서 운동하는 장면이 있어 열심히 했다. 내 인생 마지막 상의 탈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복근이) 없어졌다.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 PD는 시즌1 박준우 PD에 이어 연출을 맡아 부담감이 컸을 터다. 이제훈은 “나를 굴리고, 매다 쫓아도 좋다”며 응원을 보냈다. “시즌1이 잘되고 시즌2 연출을 맡아 어려웠을 것 같다. 지지를 보내고, PD님 편이 되고 싶었다. 힘을 실어 줬는데, 정말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연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최



고”라고 귀띔했다. 이 PD 역시 “이제훈씨에게 그 카톡을 받고 감사했다”며 “모니터 앞에서 ‘어떻게 저런 눈빛이 나오지’라며 감탄했다. 정말 열심히 해줬다”고 했다.



뉴진스, 신인상만 7번...‘2022 시상식’ 10관왕

그들 ‘뉴진스(NewJeans)’가 신인상 트로피를 하나 더 추가해 2022년 주요 시상식 총 10관왕을 달성했다. 뉴진스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열린 ‘씨클라트 뮤직 어워즈 2022’에서 ‘올해의 신인상(디지털 음원 부문)’을 받았다. 뉴진스는 “평생 한 번 수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라 정말 뜻깊다. 사랑하는 버니즈(공식 팬클럽명)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러분 덕에 꿈만 같은 2022년 한 해를 보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7월 데뷔하자마자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로 신드롭급 인기로 불을 지핀 뉴진스는 이번 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개최된 시상식에서 총 10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신인상)’, ‘멜론 뮤직 어워드 2022(톱10 본상·신인상)’,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대상 올해의 퍼포먼스·

신인상)’, ‘제37회 골든디스크어워즈(디지털 음원 본상·신인상)’, ‘제32회 서울가요대상(신인상)’, ‘30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2’(올해의 루키상) 등서 수상하며 주요 시상식 신인상을 싹쓸이했다. 신인상만 7개를 받았다. 이제 남은 건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뿐이다. 상업적 성적이나 인기보다 음악적 성취를 기준으로 하는 이 시상식에서 뉴진스는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린 후보다. ‘올해의 신인’, ‘올해의 음악인’, ‘올해의 음반’, ‘최우수 K팝 음반’, ‘올해의 노래’, ‘최우수 K팝 노래’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비록 수상이 불발된다 하더라도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인 점을 인정받은 셈이다. 뉴진스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2월 18일 자)에서 싱글 ‘OMG’와 동명의 타이틀곡 ‘OMG’는 74위, 선공개곡 ‘디토(Ditto)’는 82위를 각각 기록했다. 아직 현지 활동이나 프로모션이 없이 이뤄낸 성과다.

이효리, 유재석과 한솔밥...안테나 계약



가수 이효리(44)가 MC 유재석과 한솔밥을 먹는다. 안테나는 16일 “이효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이효리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효리의 철학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 도전을 장려하는 안테나의 뜻이 맞아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좋은 사람, 좋은 음악, 좋은 웃음”이라는 안테나 motto 아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효리 행보에 많은 관심·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테나는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사다. 2021년 카카오펀터테인먼트가 일부 지분을 인수했다. 유재석을 비롯해 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 가수 정재형, 정승환, 권진아, 샘김 등이 소속 돼 있다. 지난해 11월 이효리 남편인 기타리스트 이상순(49)도 안테나에 등지를 들었다.

투바투, 틱톡 계정 팔로워 2천만명 ↑ ...“4세대 K팝 그룹 처음”

그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의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 공식 계정 팔로워가 2000만 명을 넘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1000만 팔로워 돌파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1000만 팔로워가 추가됐다. 4세대 K-팝 그룹 가운데 2000만 명 이상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그룹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이다. 빅히트뮤직은 “음악과 퍼포먼스, 비주얼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야기를 독창적인 스타일로 풀어내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전 세계 Z세대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틱톡에서 공개한 콘텐츠의 누적 ‘좋아요’ 수는 8억2000만 건을 상회하는데, 이는 K-팝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많은 숫자라고 덧붙였다. 특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최근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의 음원을 사용한 콘텐츠들은 공개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총 12만7000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 중 타이틀곡 ‘슈가 러시 라이드(Sugar Rush Ride)’의 음원을 사용한 콘텐츠에 달린 ‘좋아요’는 9만 건을 넘어섰다.

“전 세계 Z세대의 공감과 지지 얻었다” 해석



또 트렌디한 아프로 팝(Afro Pop) 장르의 수록곡 ‘티니투스(Tinnitus)’(둘레미가 되고 싶어)’는 별도의 프로모션 없이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곡의 음원을 사용한 콘텐츠 수는 2만7000건을 넘었다. 한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 돔에서 열리는 ‘씨클라트 뮤직 어워즈 2022’에 출연한다.

‘서진이네’, 세계 시청자 만난다...프라임비디오 서비스



‘서진이네’(영문제목: Jinny’s Kitchen)가 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 17일 CJ ENM에 따르면 tvN 서진이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프라임비디오에서 공

오는 24일 tvN 첫 방송 예정

개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청자들은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시청 가능하다. 올 봄계부터 이의 국가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는 CJ ENM 계열 OTT 티빙에서 서비스한다. 서진이네는 나영석 PD의 ‘윤식당’ 시리즈 스펀오프 예능물이다. 배우 이서진을 비롯해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은 윤식당에 이어 뭉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뷁가 막내 종업원으로 합류한다. 윤식당이 불고기, 비빔밥 등 전통음식을 선보였다면 서진이네는 멕시코 바칼라르

에서 김밥, 라면, 떡볶이, 핫도그 등 분식을 선보인다. CJ ENM 서장호 콘텐츠유통사업부장은 “서진이네’는 프라임비디오가 서비스하는 첫 한국 예능”이라며 “서진이네를 통해 세계속 K-예능 열풍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프라임비디오 동남아시아 디렉터 데이비드 시몬슨은 “서진이네 출연자들이 이국 땅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높은 몰입도를 선사할 것”이라며 “서진이네와 같은 한국 예능을 통해 팬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오후 8시50분 첫 방송. 뉴스

다이나믹 듀오 최자, 비연예인과 7월 결혼

힙합듀오 ‘다이나믹 듀오’(다듀) 멤버 최자(43·최재호)가 결혼한다. 소속사 아메바컬처는 17일 “최자가 3년 여간 묵묵히 사랑을 키워온 연인과 오는 7월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예식은 가까운 친지, 지인만 참석하는 예식으로 비공개다. 아메바컬처는 “비연예인인 예비신부와 양가 가족을 배려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최자는 결혼

후에도 다이나믹듀오 멤버이자 아티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최자의 행보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자도 이날 소셜 미디어에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났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곁에서 절 따뜻하게 바라봐준 순박한 미소가 매력적인 여성이다. 꾸밈없고 같이 있으면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다. 다소 다이나믹한



제 삶에 포근한 안정감을 더해준다”고 썼다.